

# 완주군 내년도 예산 2648억

### 신성장동력 구축·군 역점사업 추진 탄력... 으뜸 자족도시 도약 기대

완주군이 2017년 국가예산으로 2648억원을 확보하면서 '으뜸 자족도시' 도약을 위한 신성장동력 구축과 군 역점 현안사업 추진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

21일 군에 따르면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액 규모는 전년 대비 4.5%인 116억원이 증가한 2,648억원이다.

특히 완주 삼봉 웰빙시티 성장기를 마련, 봉동 테크노밸리 2단계 사업 가속화, 첨단산업 기반조성, 이서혁신도시 삶의 질 향상 등 군 신성장동력 및 지역발전사업, 재난안전 및 주민생활 향위 사업 등에서 역대 최대 규모 국가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국가예산 사업으로는 완주 테크노밸리 2단계 119억원을 비롯해 완주 삼봉 웰빙시티 조성을 위한 행복주택 건설 100억원, 완주 보건소 신축 37억원, 서부내륙권 종합관광개발사업(삼례 삼색마을, 경천산수인 마을) 15억원이다. 또한 관광경쟁력강화 63억원(삼례문화예술촌 관광기반, 농촌관

광활성화플랫폼, 지역거점형 문화창조센터단지, 대둔산 관광기반 등), 기초생활인프라 109억원(농촌생활용품 개발, 마을하수도, 하수관거 정비 등)도 포함됐다.

이서혁신도시 문화체육시설 13억원(도서관 및 문화체육센터), 농림축산 기반조성 29억원(조경수유묘단지, 도시숲, 버섯생산시설현대화, 시설원에 안정생산시설 등), 재난안전·하천정비·도로개설 215억원 등도 확보했다.

이번 성과는 무엇보다 완주군 최대 핵심사업인 테크노밸리 2단계 기반구축과 10여년을 표류한 완주 삼봉혁신도시 조성을 위해 박성일 군수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력 결과물로 풀이된다.

이들은 국토교통부와 LH 및 국외와 지역정착권 등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사업타당성 설명과 전방위적 설득노력을 끈질기게 벌여온 결과, 최종 국비확보에 성공함으로써 완주군이 '15만 으뜸자족도시'로 성장하는 기틀을 마련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또 완주 보건소 신축 사업의 경우, 전국 5개 시군에서 경쟁이 붙어 국회 단계까지 국비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이었으나, 끈질긴 사업설명과 지역정착권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이뤄낸 값진 성과로, 주민들에게 한 차원 높은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삼례 삼색마을 10억원과 경천 자연공감 산수인마을 2억원이 반영된 서부내륙권 사업은 문체부 직접 용역으로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임에도 지난해 기재부 단계에서 어렵게 탈락했으나, 올해는 전북도 및 지역정착권과 완주군이 탄탄한 삼각공조를 통해 전략적 국비 확보에 성공했다.

이 밖에 이서 혁신도시 청소년·문화체육센터 6억원, 공공도서관 건립 7억원 확보는 부족한 정주기반으로 인해 가족동반 이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혁신도시 공공기관 직원들과 이서지역 주민들의 정주여건 개선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이종복 기자

## '사회 경험도 하고 학비도 벌고' 무주군,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

무주군은 겨울방학을 이용해 군정을 비롯한 머무와인동굴 등지에서 일할 대학생 아르바이트생 36명을 모집(123일~27일 / 무주군청 3층 자치행정과)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부모 중 한 명과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무주군인 대학교 재학생(휴학생, 대학원생 제외), 또는 예비대학생(군 복무를 위한 휴학생 접수 가능)으로, 선발 시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등

저소득층과 장애인복지법상의 등록 장애인 본인, 2016년에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참여하지 않은 학생, 재학 대학생이 2명 이상인 세대(단, 1세대 1명만 선발)의 자녀, 지방세 과세 정도가 낮은 가정의 학생 등을 우대한다.

합격자는 12월 30일 개별 통보될 예정으로 무주군홈페이지(www.muju.go.kr)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무주군 대학생 아르바이트생들은 1차수가 1월 2일부터 26일까지, 2차수가

1월 31일부터 2월 24일까지 주 5일(1일 8시간) 근무하게 된다.

무주군 자치행정과 박미영 주무관은 "대학생 아르바이트는 학생들의 학비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간단한 사회경험을 제공한다는 취지에서 운영하는 것"이라며, "대학입학을 앞두고 있거나 방학을 한 학생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 장수군, 온실가스 감축 '온맵시 캠페인' 전개

### 실내온도 18~20℃ 유지 등

장수군은 지난 20일 겨울철 저탄소 생활실천을 위해 군청 공무원 및 장수군 그린리더 네트워크 회원들 약 40명과 합동으로 에너지 절약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온맵시 캠페인'을 장수시장에서 실시했다.

'온맵시 입기'는 실내 난방온도를 낮추기 위해 편안하고 따뜻한 옷을 착용해온실가스 발생량을 줄이는 녹색생활실천운동이다.

군은 겨울철 실내온도 18~20℃ 유지하기, 내복착용으로 2.4℃ 보온효과를 발생하는 온맵시 착용하기, 보일러 사용시간 1시간 줄이기, 친환경운전하



장수군은 장수시장에서 '온맵시 캠페인'을 전개했다.

기, 대중교통 이용하기 등을 통해 난방비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의 효과

를 위해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 완주군, 저출산 극복 선도 지자체 '2관왕'

### 우수시책 경진대회 이어 '뉴-베이비붐' 공모 선정

완주군이 행정자치부 주관,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 수상에 이어 '뉴-베이비붐 선도지자체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돼 특별교부세 5억5000만원과 도비 2억750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완주군은 행정부가 주관하는 뉴-베이비붐 선도지자체 조성 공모사업에 '해피맘 프라자 조성사업'을 공모, 전국 226개 지자체 중 서울 성북구, 충남 부여, 경남 밀양, 경북

의성군과 함께 선정됐다고 21일 밝혔다.

뉴-베이비붐 사업은 다양한 저출산 극복 시책이 주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설 조성 및 지역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의 해피맘프라자 조성사업은 지난 5월 개관해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는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 인근에 건물 1동(49평)을 공동육아 나눔터로 리모

델링해 육아 정보 교류의 장소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일·가정 양립지원센터 1동을 신축해 가족문화 개선 등 기존 가족사업 활성화와 결혼, 출산, 양육, 일자리 등을 연계한 저출산 극복 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군은 지난 11월 행정자치부 주관 저출산 극복 우수시책 경진대회에서 우수상을 수상해 특교세 2억원을 확보한데 이어, 이번 선도 지자체 선정으로 추가적으로 특교세 및 도비를 교부받는 등 2관왕이라는 쾌거를 달성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완주군, 청소년 유해업소 합동점검 실시

완주군은 21일 아동친화도시 조성 및 청소년의 일탈행위를 예방하고자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유관기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완주경찰서, 완주군 청

소년상담복지센터, 전라북도 유해환경감시단 등 10여명이 참여했으며 이서혁신도시 주변 일대를 점검했다.

합동점검반은 3개의 점검반을 편성, 완주군-전라북도 유해환경감시단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판매행위, 주류·담배 판매 금지 스티커 부착여부를 점검했다.

완주경찰서에서는 혁신도시 내 비어있는 상가건물에서 청소년들이 술·담배를 하거나,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취약지역 순찰을 실시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 무주군, 숲 가꾸기 '최우수기관'

### 도지사 표창·상금 받아

무주군이 2016년 숲 가꾸기 사업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지난 21일 도지사 표창과 상금 3백만 원을 받았다.

숲 가꾸기 사업 평가는 전북도가 2016년 한 해 동안 지속가능한 산림자원을 조성하는데 힘쓴 시·군을 발굴하기 위해 진행한 것으로, 무주군은 큰 나무 가꾸기(제거목 20ha 포함 91필지 319.5ha)와 어린나무 가꾸기(123필지 388ha), 조립지 가꾸기(269필지 893ha) 등을 시행하고 숲 가꾸기 산물수집(1,637㎡)과 공공산림 가꾸기 근로자를 운영(62명)해 건강한 숲 조성과 임업인 산림소득 증대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조립, 어린나무·큰 나무 가꾸기 등의 사업을 완료한 지역

에 대해서는 사업량과 사업종, 방법 등을 행정시스템과 연계한 사업 경영정보시스템에 입력해 자료화시켰으며, 산림 GPS장비를 숲 가꾸기 경계를 구분하는데 활용하고 집게 차와 산물수집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유령목 육성과 양질의 목재생산을 주도해 호평을 받았다.

무주군 환경산림과 강세철 과장은 "무주군 전체 면적의 82%를 차지하고 있는 산림은 깨끗한 무주 부자되는 군민을 실현하는데 중요한 기반"이라며 "환경을 살리기 위해 숲을 가꾸고 산림의 경제적 가치를 우선 고려해 산림자원을 관리해 보람이 느껴져 기쁘고, 이를 토대로 산림자원화와 임업경쟁력 강화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은 20일 2차 지역축제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진안의 4대 축제(고로쇠, 꽃잔디, 수박, 홍삼)에 대한 2016년 성과보고와 함께 2017년 진안 축제 개최시기·명칭을 결정했다.

## 진안군, 지역축제심의위 개최

### 축제 개최 시기·명칭 결정

진안군은 지난 20일 2차 지역축제심의위원회(위원장 이항로)를 개최하고 진안의 4대 축제(고로쇠, 꽃잔디, 수박, 홍삼)에 대한 2016년 성과보고와 함께 2017년 진안 축제 개최시기·명칭을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4대 지역축제의 축제위원장들이 직접 성과와 결과를 설명하며 개선사항 및 발전방향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장이 되었으며 올해부터 축제담당부서가 전문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축제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축제 발전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올해 개최된 지역축제에 대한

관광객과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을 수렴하여 진안 홍삼축제(10월 12~16일)와 원연장 꽃잔디 축제(4월 21~23일)의 시기를 조정하였으며 진안고원운장산 고로쇠축제(3월 11~12일)와 진안고원 수박축제(8월 5~6일)로 명칭을 변경하여 2017년 지역축제를 예년보다 더 빠르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기로 결정했다.

이항로 축제심의위원장은 "작년에 신설된 축제담당부서를 중심으로 지역축제가 보다 체계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며, 이번 심의회를 통해 부족한 점을 개선하고 보완하여 축제를 통해 진안군에 사람이 모이고, 돈이 모이는 희망찬 진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 대곡 관광지 준공식

장수군에서는 21일 오후 2시 장계면 논개생가길 31-13 일원 대곡 관광지에서 최홍득 장수군수, 양성빈 전북도의원, 김중문 장수군의회 부의장 등 지역관내 주민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준공식을 가졌다.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사업 승인을 받아 2013년 10월 실시계획을 시작으로 2015년 도개비전시관 리모델링 공사, 2016년 대곡 관광지 토목·건축, 통신, 전기에 총사업비 85억7,400만 원 중 국비 40억2,200만 원 군비 45억2,200만 원을 투자했다. 대곡 관광지의 주요시설로 총 31개

실(한국 8개동 21객실, 오두막집 10동) 다목적실, 주차장, 도개비전시관, 힐링산책길, 진입도로 개설 등을 완료했다.

장수군에서는 2017년 4월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5월 1일부터는 전국 각 지역에서 찾는 휴양객들에게 개방, 전통 한옥숙박 체험 및 인근 주촌마을과 결합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최홍득 장수군수는 "대곡 관광지는 장수군의 또 하나의 관광자원"이라며 "앞으로도 논개생가길 주변의 자연문화적 관광자원을 활용해 관광지인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특별블로그

### 진안보건소, 진안읍서 통합보건서비스 운영

진안군보건소(소장 이승호)는 지난 20일부터 내년 2월 24일까지 농한기를 활용해 보건사업 취약지역인 진안읍을 대상으로 경로당을 방문해 통합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보건소 내 연계 가능한 자원으로 2개의 팀을 꾸려 생활터전 경로당을 중심으로 혈압, 혈당, 기초건강측정과 건강상담, 치매선별검사, 심뇌혈관질환예방교육, 금연, 절주, 아토피·천식예방, 구강 진료 등 찾아가는 통합보건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통합보건서비스 검사 결과 건강위험군과 질병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보건소에 등록해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통해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건소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안내와 치매예방·심뇌혈관질환예방법 등을 소책자로 제작 배부하여 보건사업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이승호 소장은 "농한기 활용되어 있는 경로당을 활용하여 통합보건서비스를 제공해 건강마을 만들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군민 건강 수준을 한 단계 높여겠다"고 말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 장수군농민회 - 제주남원농민회 자매결연... 제주감귤 판매행사

장수군 농민회가 제주도 남원읍 농민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제주감귤 판매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장수군 농민회는 지난 20일 농업중앙회 장수군지부 앞에서 행사를 열고, 당일 직송된 제주 감귤 2,000박스를 판매했다.

이는 장수군 농민회와 제주도 남원농민회 자매결연을 통해 10여 년간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농산물 교환판매 행사로, 제주도 남원읍 농민회에서는 장수군 메뚜기쌀을 교환받아 판매한다.

장수군농민회 차용우 회장은 "소비자에게는 질 좋고 싱싱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최근 쌀 값 하락과 꿀 값 하락으로 인해 침체된 두 농민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 농어촌공 무진장지사

### "내년 영농급수 지장 없어"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이안구)는 21일 7월 현재 공사 관리 저수지 62개소의 평균 저수율이 74.4%로 평년 71.0%대비 104.8%수준으로 내년 농업용수 공급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무진장지사는 용립저수지 등 10개소에 특농이거사업을 실시하여 저수량 18,158천㎥를 추가확보하여 16년 극심한 가뭄에도 단 한건의 피해 없이 영농기를 마무리 하였다.

이안구 무진장지사장은 "현재 농업용수가 충분히 담수되어 있어 17년 영농급수에는 문제없을 것으로 전망하지만, 이상 기후에 대비해 저수를 모니터링 등 효율적인 용수관리를 통하여 영농급수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 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 진안홍삼연구소, 장학금 기탁

진안홍삼연구소(소장 고근택)는 21일 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장학금 116만원을 진안사랑장학재단에 전달했다.

고근택 소장은 "우리 진안의 꿈나무들이 자신의 꿈을 향해 한 발 더 나아갈 수 있는 발판이 되어주고 싶어 장학기금을 기탁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진안홍삼연구소는 2008년 설립되어 초·중·고, 유·산공 등 친환경 청정 진안 지역의 향토 지역특화 품목인 진안홍삼 소재를 활용하여 맞춤형 건강 기능 식품을 개발하는 데 힘쓰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